

고입 자기소개서는 경어체로 작성해야 하나요?

중3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의 목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학원이나 선배맘들이 들려주는 조언(?)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는 되도록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1천500자 안에 내용을 축약해 담아내기도 벅거운데 높임말로 작성하다 보니 자리를 더 차지한다며 아이가 울상입니다. 높임말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_ 서현아(43·서울 서초구 반포동)

특목·자사고 포함, 고입 자기소개서에 경어체 사용을 명시한 학교는 없습니다.

고입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의 입학부장 조경호 교사는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에 경어체 사용 유무로 성적을 나누는 기준이나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자가 보는 것은 오직 ‘내용의 충실도’다. 해당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 과정, 미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고민, 계획이 담겨 있으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 부모 직업, 친인척 실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미래교육 조재형 대표는 “자기소개서는 학생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만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모범 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재 금지 사항’을 적어내면 0점 처리되거나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자기소개서 기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원 학교 홈페이지에서 '2022년 신입생 모집 안내 자료'를 살펴보거나 학교 측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nni@naeil.com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공동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의미 있게 평가하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 공동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아이 학교에서도 권장하는 분위기고요. 공동 교육과정 이수 자체로 의미 있게 평가할 것 같진 않지만, 학업 태도나 적극적 탐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 활동을 소화하는 것도 벽찬데 공동 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할까요? 또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기재되는지도 알려주세요.

_ 박민영(48·서울 서초구 양재동)

공동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 세특에 기재, 위계질서 무시한 과목 선택은 의미 없어

학생부 기재 내용이 축소되고, 대입에 미반영되는 사항이 증가하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생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경기 송우고 최학모 교사는 “공동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으로 표기된다. 당연히 교과 세특에도 기재된다. 따라서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는데 해당 고교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업 역량이나 지적 호기심 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건국대 입학처 방유리나 입학사정관은 “단순히 공동 교육과정 이수가 서류에서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동안 학생이 선택했던 과목과의 위계를 비롯해 공동 교육과정으로 선택한 과목이 전공과 연관이 있는지, 또 왜 이 과목을 들었는지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특에 공동 교육과정으로 무엇을 배웠고, 어떤 도움이 됐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학업 역량, 경험의 다양성이나 학업 태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꿈의대학'처럼 정규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지만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 이수 과목명과 시간만 기재됩니다. 교육청 주관 활동은 공동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항이 미미하지만, 학생의 관심 분야를 드러내고 교과와 연계해 넓은 시야를 갖추는 데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고2까지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해 해당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적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공동 교육과정이나 교육청 주관 활동을 선택해야 서류 평가에서 훨씬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